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1. 15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칼 빼든'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EPgPkj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에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을 특별 점검
특히 금융당국의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을 이틀 앞두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

금융당국, 새해 가계대출 총량 설정 착수…증가율 2%대 초반 유력

뉴스1 https://zrr.kr/moTkZN

금융당국이 2026년 가계대출 총량 한도 설정 작업에 착수… 올해 더 엄격한 대출 관리 기조를 세운 상태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는 2% 초반대가 유력
금융권은 이르면 2월 중순, 가계대출 총량 한도 설정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본격 금리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주담대 줄였는데 안 잡히는 집값…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딜레마

서울경제 https://zrr.kr/PLdEvw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조 2000억 원 감소한 1173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5000억 원) 이후 11개월 만에 내림세
문제는 금융 부문에서 가계대출 억제책이 약발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2.52% 상승

외화예금 '과열' 지적에… 주요 은행들 잇따라 예금금리 인하

동아일보 https://zrr.kr/4DVEKH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외화 예금 마케팅 자제령'을 내리자 주요 은행들이 달러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 모습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주요 은행 실무자들을 불러 외화예금과 보험에 대한 과도한 영업을 자제하고 환율 유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

靑·금투업계, 서학개미 복귀 대책 비공식 논의

뉴시스 https://zrr.kr/M2iyh0

청와대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
참석자들은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한 방안을 논의, RIA의 신속 도입과 소득공제, 펀드·ETF 분배금에 대한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 비과세 등을 건의

500만원 보상에 주식 증정까지… '국장 귀환' 투자자 잡기 나선 증권사들

세계일보 https://zrr.kr/INa0uU

정부의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주요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현금 지급과 주식 증정 등 공격적인 마케팅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200 종목 중 2주 추첨 증정, 타사 주식을 옮겨오는 고객에게 최대 501만원 혜택 제공, 키움증권은 '타사 주식 옮기기' 이벤트로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등

한화 "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검토"

머니투데이 https://zrr.kr/jXYPzK

㈜한화는 14일 인적분할 발표 후 콘퍼런스콜을 통해 "아직 주주환원정책이 포함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안 한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자회사들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
금융 계열사는 존속법인 ㈜한화에 속하며, "금융부문 추가 분할 계획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이나 검토하는 내용이 없다"고 언급

"보험 갈아타세요" 권유전화 덜 받겠네…설계사 수수료 7년 분할지급

매일경제 https://zrr.kr/kfHncs

앞으로 보험계약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험설계사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태가 줄어들 전망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초기인 1~2년 차에 설계사에게 몰아줬던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

스테이블코인과 신용카드 하나로…KB국민카드 '하이브리드 결제' 특허술

뉴스1 https://zrr.kr/mdm0fc

KB국민카드는 기존 카드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 하이브리드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 신청
이번 특허는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주소를 연동해 별도 카드 추가 발급 없이 디지털자산과 신용카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美상원서 가상자산 규제법안 발의…업계, 불확실성 해소 기대

연합뉴스 https://zrr.kr/mvboGP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